

## 제 2 편 성 장 기

계 일 목사 시대 (1900~1927)

이명혁 목사 시대 (1919~1927)



## 게일(기일) 목사

## 민중교회 터전 잡은 캐나다 선교사 우리나라 고전 및 문화사업에 기여



1900년 5월 캐나다 출신인 게일(J. S. Gale : 奇一)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1888년 12월 내한해 부산·서울을 거쳐 원산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고찬익을 만나 전도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장로로 장립시킨 뒤 1904년 당회를 조직했다.

게일 목사의 재임기간(1900~1927) 중 두드러진 것은 계급사회 가운데 고찬익 장로에 이어 이명혁 장로와 임공진 장로를 천민에서 영입한 사실이며 연동소학교와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중학교 및 주일학교의 전신인 소아회를 설립해 교회선교에 치중하고 '한국어사전'·'한영자전'의 편찬과 '친로역정'·'춘향전' 등의 영역 및 '신구약전서'의 한글 번역 등 문화선교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로자였다. 그 밖에도 남전도회의 전신인



게일 목사 등 성서번역 위원들(1895~1906)



협력자들(이원모 · 이창직 · 이교승) - 1908



게일 목사는 1925년 한국 최초의 사역 성경 '신구약 전서'를 번역 출판했다.  
위 오른쪽은 영인본, 하단은 그 원고.



'신구약 전서'의 원고를 딸인 안락선이 보관하고 있다가 1984년 교회창립 90주년 때 내내 해서 연동교회에 기증했다.(연동역사관 소장)

장신회와 여전도회의 전신인  
홍신회를 조직하고 안성서리  
교회 · 왕십리교회 · 독섬교  
회 · 명륜중앙교회 등을 개척  
한 업적을 남겼다.

1892년 4월 헤론 의사의 미  
망인 (H. E. Gibson)과 결

혼했으나 1908년 3월 결핵으  
로 세상을 떠나자 1910년 4월  
영국의 실업가의 딸(L. S.  
Ada)과 재혼해 슬하에 전처  
의 2녀(애니와 제시) 외에 1남  
(기조세) 1녀(안락선)를 두었  
다.

### 게일 목사 추도식 주요식순(연동교회)

1937년 2월 18일 오후 2시(사회 : 함태영 목사)

목도 : 일동 / 찬송 : 149 / 기도 : 김영식 목사/ 성경 : 진석  
오 장로/ 추도가 : 정신찬양대 / 설교 : 전필순 목사/ 약사 :  
이원모 장로/ 추도사 : 군예빈 목사 · 민휴 장로 · 이석진  
목사 · 이강혁 선생/ 답사 : 원한경 장로/ 축도 : 권영식 목사



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길선주 목사와 - 1912



결혼기념(신랑 게일 · 신부 애다와 가족들) - 1910  
장모 · 작은딸 제시 · 신부 친구(리디안) · 신부(애다) ·  
신랑(게일) · 큰딸 애니(후에 게일의 조카 예찬의 부인)



수십 권의 저서 가운데(1895~1925)



퇴임 후 가족사진(부인과 아들딸) - 1928



영국 베스의 렌스타운 게일 목사 묘(1937 작고)

## 초기 한옥 예배처소

최초 예배처소는 지금 교회당 입구  
세번째 교회당은 지금 교회당 자리

1894년 염창준의 소개로 초가 한 채를 매수해 문을 연 연동교회 최초의 예배처소. 지금 교회당 입구에 설치한 '꽃돌' 자리이다. 1898년 이 건물은 연동소학교의 발상지가 됐다.

교인이 증가해 마련한 두번째 교회당은 1896년 기보 선교사 주택을 개조해 봉헌한 한옥이었다.

1900년 4월 10일 기보 선교사가 급사하고 곧바로 (5월) 게일 목사가 부임해 교회당은 옮겨졌다. 그래서 세번째는 지금의 교회당 자리(연지동 136-12·17번지)로서 가운데에 마당이 있고 둘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7자와 14자의 한옥이었다. 교인의 헌금으로 개조하고 1905년 5월 증축해 11월 헌당했으며 이무렵 교인수는 6백여명이었다.



첫번째 예배처소 주변의 민가 - 1894



연동교회(두번째 교회당)에서 모인 서울 연합제직회 - 1905

## 연동소학교와 경신 · 정신

## 일찍이 어린이 교육에 착수 경신과 정신은 동반자 관계



1898년 연동교회는 교회 안에 초등교육기관인 연동소학교를 설립했다. 처음에 남학생 10명을 뽑아 이덕준 선생이, 그 이듬해에는 여학생 약간명을 받아들여 신마리아 선생이 가르쳤다.(사진 : 상) 1906년에 이르러 연동소학교는 연동남소학교

와 연동여소학교(사진 : 중)로 분리했으며 1909년에는 근처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인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의 교명을 따서 경신남소학교와 정신여소학교로 개명했다.

한편 정동에서 시작한 경신학교의 전신인 언더우드학당이 폐당된 지 4년만인 1901년 1월 게일 목사는 중단된 미국북장로교회의 중등교육(남자)을 재개하기 위해 교회 내에 중학교를 세워 서병호 외 5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 이듬해 연지동 1번지로 독립해 나가면서 예수교중학교(사진 : 하 왼쪽)라 하다가 1905년에 '경신'이란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동에서 1895년 10월 연동교회 옆으로 이전해 온 정동여학당도 연동여학교(사진 : 하 오른쪽)로 개명하고 정신여학교의 기초를 닦아 나갔다.



연동여소학교 학생들(●표 : 신마리아 선생) - 1907



예수교중학교 학생들(●표:서병호 학생 · 뒷줄:게일 목사) - 1902



연동여학교 학생들 - 1895

## 교회 개척 및 설립

1902년부터 연동교회, 혹은 교인들이 각처에 장막을 치고 복음을 전파했으니 안성서리에, 왕십리에, 독섬에, 상십리에, 송신에, 장평리에, 영동에, 동정동에 예배처소 문을 열었다. 그 중 크게 성장한 세 교회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왕십리중앙교회

지금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소재 왕십리중앙교회, 1905년 연동교회 박한영 성도를 위시해 몇몇 교인이 한성부동부 인창방(지금 마장동)의 김판서 소유 별장에 왕십리에배치소를 설치하고 이후 목조 6평의 예배당을 건축했다. 1908년 연동교회는 초대 교역자로 박승명 조사를 파송한 뒤 이어서 이명현·임공진·권영식 조사가 시무했다. 1911년 이명현 조사와 조보희 전도부인을 파송하고 소아회(주일학교)를 조직했다.

### 성수동교회

지금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동교회, 1906년 연동교회 이종경·최관성 성도가 독섬에 독섬예배치소를 설치했다. 1911년 권영식 조사를 파송하고 1913년부터 조보희·강요안나 전도부인이 시무하고 김종상 조사가 소아회를 조직했다. 방학 때이면 경신·정신 학생들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했다. 독섬교회는 성수동교회로 개명하고 1982년 합동으로 교단을 옮겼다가 1999년 다시 본 교단인 통합으로 복귀했다.

### 명륜중앙교회

지금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명륜중앙교회, 1908년 연동교회는 북부지역 송신방의 성균관 앞에 송신예배치소를 설치했다. 1910년 한옥 한 채를 매수해 최초의 강단을 마련한 뒤 1912년 허나오미 전도부인, 1916년에는 서상일 장로를 파송했다. 1927년 연동교회 당회는 송신예배치소 설치 20년만에 분립시키기로 결의하고 오천영 목사를 파송해 동년 7월 28일 제1회 당회를 개최한 뒤 7월 31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1905년 설립한 오늘의 왕십리중앙교회



1906년 설립한 오늘의 성수동교회



1908년 설립한 오늘의 명륜중앙교회

## 소아회

## 우리나라 주일학교 선두주자 교인 7백명일 때 학생 921명

1907년 5월 5일(주일) 오후 2시에 새로 봉헌한 교회 당에서 주일학교의 전신인 소아회(小兒會)를 설립했다. 초등교육기관인 부설 연동소학교와는 별도로 어린이의 기독교 교회교육을 목적으로 한 소아회는 성경 반으로부터 시작해 주일학교 및 교회학교의 모체로서 김종상 집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아회 명칭은 게일 목사가 지었다.

처음 착수한 것은 교회소속 소학교 학생 8백명 중 12명을 선발해 전도대를 조직한 것이었다. 이들은 토요일마다 모여 주일에 있을 모든 계획을 스스로 협의하고 주일 오후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어린이를 모아 들였다. 창설 당시 서기 겸 회계는 이강혁 집사였고 반사(교사)는 주로 경신·정신 학생들이었다. 이무렵 김종상 집사가 '예수교회보'의 주필을 맡고 있어 신문에 주일공과를 게재해 그것을 반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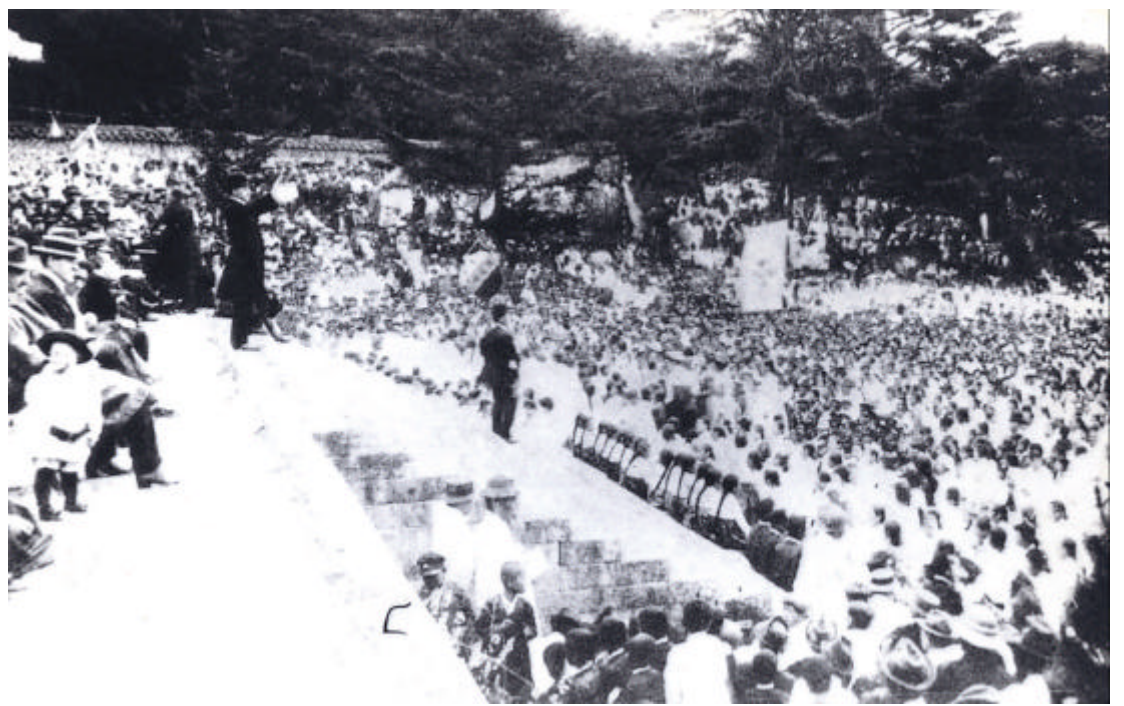
가르치도록 했다.

1914년 전체 교인수 7백명일 때 소아회 어린이는 921명이었다.

1913년 9월 창덕궁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주일학교대회에는 연동교회 소아회 어린이 등 1천5백명이 참석, 이때 강사(위 사진 상단)는 원두우 목사였다.

주일학교 통계(1930~1934)

| 연도별  | 교파별 | 학교수   | 학생수     | 교사수    |
|------|-----|-------|---------|--------|
| 1930 | 장로회 | 4,360 | 232,185 | 20,613 |
|      | 감리회 | 609   | 16,644  | 3,664  |
| 1931 | 장로회 | 4,520 | 267,736 | 25,393 |
|      | 감리회 | 590   | 47,223  | 3,534  |
| 1932 | 장로회 | 4,858 | 344,915 | 26,493 |
|      | 감리회 | 574   | 49,330  | 3,530  |
| 1933 | 장로회 | 3,143 | 286,921 | 25,613 |
|      | 감리회 | 581   | 50,308  | 3,863  |
| 1934 | 장로회 | 3,198 | 293,810 | 26,810 |
|      | 감리회 | 561   | 50,046  | 3,800  |



제1회 전국주일학교대회(대회장 : 남궁혁 목사) 창덕궁 - 1913



제2회 전국주일학교대회(대회장 : 장흥범 목사) 연동교회 앞 - 1925

## 이준 열사와 이상재 피택장로

고종의 특사로 네덜란드에 파견  
선교 · 교육 · 계몽 · 독립에 헌신



이준 열사



이상재 피택장로



만국평화회의장(네덜란드 헤이그) - 1907

1907년 6월 15일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기 위해 고종 황제의 특사로 이준 성도가 파견됐다. 그러나 일본측 대표의 방해 공작으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한 이준 성도는 본격해 7월 14일 목숨을 끊고 순국했다.

1906년 의정부 참찬으로 있던 이상재 성도가 고종 황제에게 밀사 파견을 비밀리에 추진시켰었다. 이준 성도는 이상재 성도와 독립협회 조직 때부터 구국운동에 힘을 모았던 동지이자 연동교회 교우이며 함태영 장로와도 법관양성소 1회 동기였다.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 이기항 원장은 "연동교회 성도로서 신앙을 키우며 복음으로 무장한 평화의 사도"라 했다.

월남 이상재는 감옥에 있을 때 게일 목사의 전도를 받고 차입해준 무디의 설교집을 읽으며 신앙심을 굳혔다. 1904년 출옥 동지인 유성준 · 김정식 · 박승봉 · 홍재기 · 안국선 · 이원궁 등과 같이 입교해 집단세례를 받아 연동교회는 고관 지식층이 모이는 교회로 알려졌다. 한편 게일 목사가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회장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평생 YMCA와 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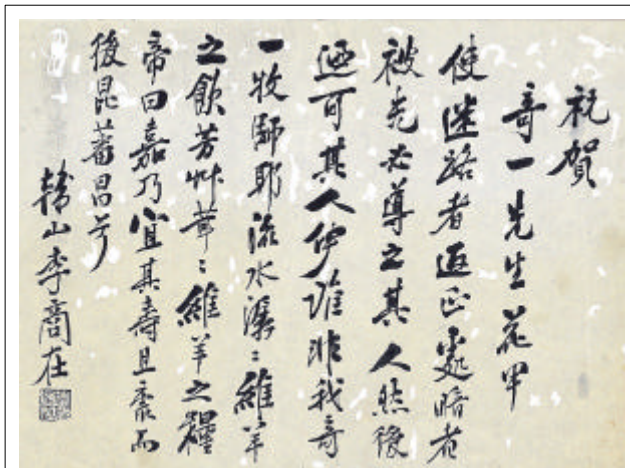
1912년 연동교회는 이상재 성도를 장로로 택정했으나 평신도로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을 내세워 사양했다.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예배식은 소아식 중양이었다.



이상재 피택장로의 가족사진 - 1913



고종의 이준 열사 위임장 - 1907



이상재 피택장로의 게일 목사 회갑 축하문 - 1923

## 이눌서 목사와 밀의두 목사

두 선교사 노력으로 교인 증가  
매일 일곱차례 이상 집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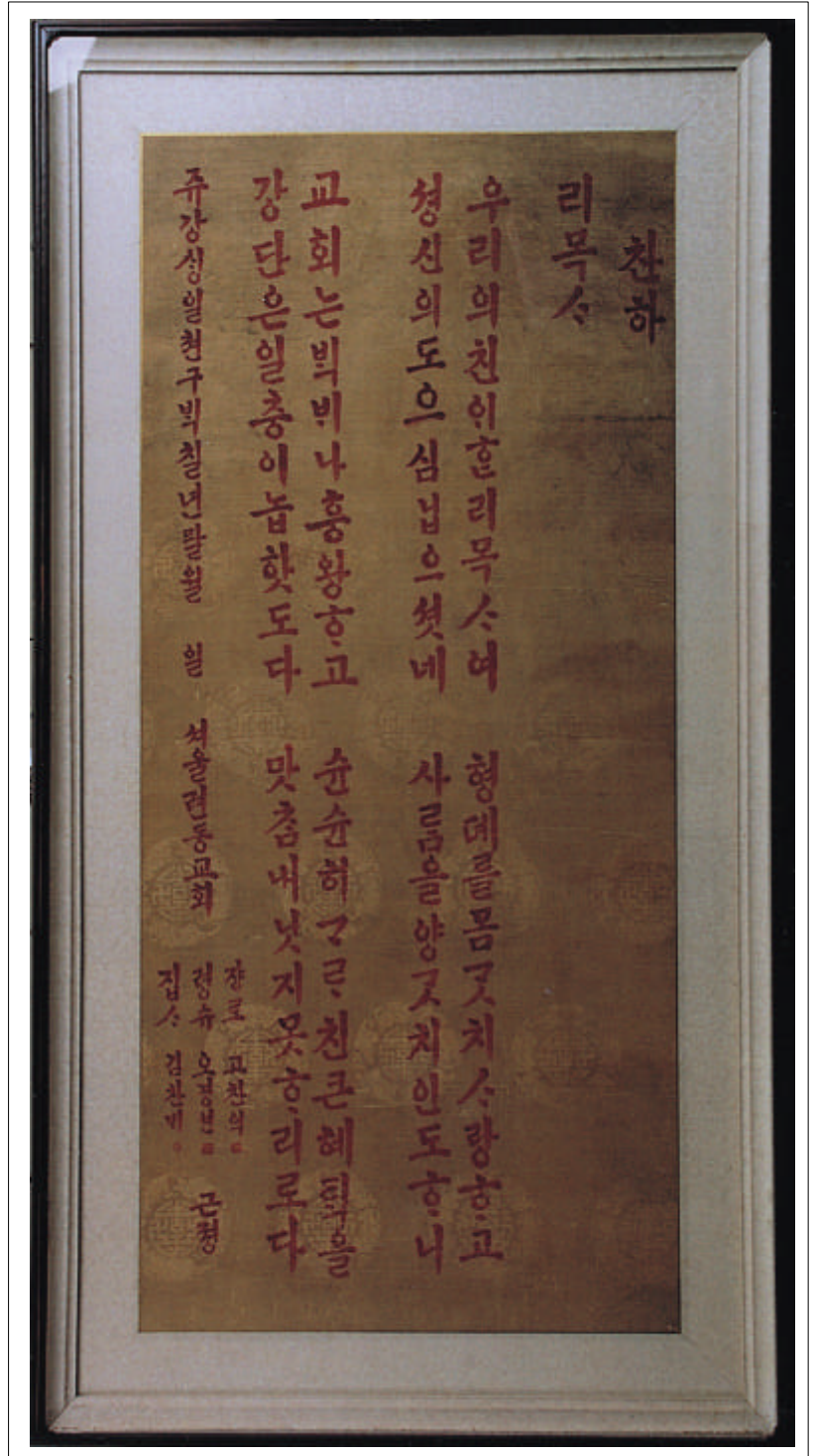
이눌서 목사

밀의두 목사

1906년 3월부터 1907년 8월까지 게일 목사가 안식년으로 강단을 비우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미국남장로교회 선교사 이눌서 목사가 그 직무를 담당했다. 이눌서 목사는 희랍어·라틴어·불어·독어에 통달해 1895년부터 원두우·게일 목사와 함께 성서번역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재임기간 교인들 가슴에 크게 이름표를 붙이도록 해 6백여명 교인의 이름을 모두 외울 정도였다. 교인을 형제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교회건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했다. 그래서 이임할 때 비단폭에 찬하문을 새겨 증정했다.(오른쪽 사진)

그 후 이 찬하문은 유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1980년 숭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서의필 교수에게 인계돼 기독교박물관(숭실대)에 기증하기 직전, 필자의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1980년 3월 연동교회로 돌아오게 됐다.(아래 사진 : 인계인수 기념)

한편 이눌서 목사 재임 중 선교사 밀의두 목사가 부목사격으로 부인과 함께 연동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했다. 밀의두 목사는 게일 목사(제4대)에 이어서 경신학교 교장(제5대)이고 그 부인 역시 정신여학교 교장(제5대)이었다. 빈번한 이눌서 목사의 평양 출장 때 밀의두 목사가 치리 및 설교를 맡았다. 이 무렵 두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2명의 조사와 5명의 권서, 5명의 소아회 교사가 있었다.



찬하 이목사/ 우리의 친애한 이 목사여/ 형제를 몸같이 사랑하고/  
성신의 도우심 입으셨네/ 사람을 양같이 인도하니/ 교회는 백배나  
흥왕하고 / 순순히 가르친 큰 혜택을/ 강단은 일층이 높았도다/ 마  
침내 잊지 못하리로다/ 주강생 1907년 8월 일/ 서울연동교회/ 장  
로 교찬익 / 영수 오경선/ 집사 김찬배



1980년 3월 10일 대전에서 인계인수

## 고찬익 장로

귀신 섬기던 갯바치 천민출신  
가가호호 방문해 부흥 일으켜

게일 목사가 이름지어준 고찬익 장로는 갖바치 출신, 일찍이 원산에서 선교 중이던 게일 목사를 만나 새 사람이 됐다. 1899년 게일 목사를 따라 상경, 1900년 연동교회 조사가 되고 1904년 당회가 조직되기 직전 장로 장립을 받았다. 이어서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해 1907년 장대현 예배당에서 독노회가 조직되고 한국 최초의 목사 7인이 안수하는 자리에서 36명의 장로 중 성경봉독(요 9-25)을 했다.

고찬익 장로는 열심있는 전도사로서 가가호호를 방문해 대부흥의 불을 붙여 1907년 초 5백명이던 교인이 1천2백명을 육박했다.

1908년 5월 장로회신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고 50세도 안된 나이에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연동교회로 운구돼 전교인이 애도하는 가운데 교회장(제1호)으로 장례식을 엄수했다.

그의 묘지와  
독사진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계일 목사와 원산 지방의 한국인 교인들 - 1895



고창익 장로가 참석한 전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 - 1907